

금호타이어와 손흥민 응원해요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토트넘을 공식 후원한다. 19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의 핫스퍼 웨이에서 열린 조인식 뒤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왼쪽 세 번째)이 손흥민(왼쪽 두 번째) 등 토트넘 대표선수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EPL 토트넘 공식 후원 계약

흥경기 중 LED광고 등 브랜드 노출
토트넘 외에도 유럽축구 후원 꾸준
이한섭 사장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금호타이어는 19일(현지시각)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영국의 명문 프로축구 구단 토트넘 핫스퍼와 2016~2017 시즌부터 공식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축구 마케팅이다.

토트넘의 훈련장인 영국 런던의 핫스퍼 웨이(Hotspur Way)에서 진행된 이날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이한섭 사장과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Mauricio Pochettino)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및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

(Christian Eriksen) 등 토트넘의 간판 스타들이 참석했다.

토트넘은 1882년 창단한 북런던의 강호로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손흥민이 독일 레버쿠젠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의 몸값을 기록하며 이적해 국내팬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150개 공식 서포터즈 클럽과 4억명 이상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국가대표 이영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해 국내팬들에게도 친숙한 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후원계약을 통해 토트넘의 홈구장인 '화이트 하트 레인(White Hart Lane)'에서 열리는 리그 및 컵 대회 경기 중 LED 광고, A보드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각국에서 약 9억3000만명이 시청하고, 지난 시즌

중계권료만 총 25억 달러(한화 약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홍보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토트넘의 로고 및 손흥민을 비롯한 대표 선수들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축구교실에 선수들을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 박지성이 몸담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을 통해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젊고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를 전달한 바 있다. 브랜드 홍보 외에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현지 고객들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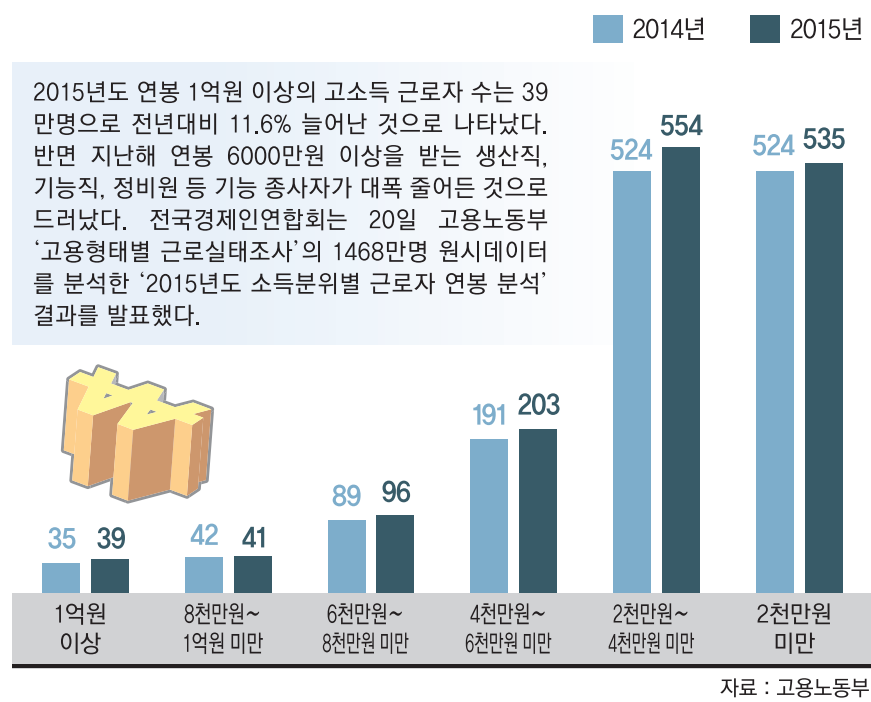
금호타이어 이한섭 사장은 “세계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축구리그인 프리미어리그의 명문구단 토트넘과 파트너

십을 맺음으로써,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 이후에도 유럽 축구리그 주요 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현재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SV, 헤르타 베를린, 샬케04 및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아틀레티코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프로축구 무대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는 토트넘과의 계약 다음날에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올림피크 리옹과도 2016~2017시즌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홈구장인 '파르크 올랭피크 리오네(Parc Olympique Lyonnais)'에서 계약식이 진행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연봉금액별 근로자수 분포 추이 (단위 : 만명)



여성수술 전 ‘매직탭’ 확인

약 1cm 최소절개로 회복 빨라...의사 수술경험·노하우 중요

행복했던 부부생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균형이 깨진다.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러한 문제로 행복도가 떨어지고 가정의 불화 혹은 이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부부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질과 골반근육은 성관계 시 성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출산 후 질과 골반근육이 늘어지면서 성관계 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경우는 많다. 이로 인해 중년 이후 여성들은 성관계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케겔운동과 같은 근력강화 운동 등으로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운동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꾸준히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어 ‘질성형’이나 ‘질 펌프’ 등과 같은 속칭 이쁜이수술이 이목을 끌고 있다. 과거 ‘이쁜이수술’이라고 불리던 질성형수술은 행방불명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년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성성형 수술방법이다. 하지만, 가로 4cm 세로 8cm의 정도의 절개로 흉터 자국이 생기거나 유착현상, 질 벽에 융기, 탈출을 만들고 질 건조증, 과다출혈의 부담감이나 부작용, 합병

증 등의 위험도 컸다. 수술 뒤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약 4개월이 지나면 80% 정도의 환자들이 질 내부가 다시 늘어져 재수술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허받은 질성형술인 질매직탭은 최소절개를 통해 약 1cm만 절개한다. 출혈이나 흉터의 부담이 적고, 질 건조증을 유발했던 과거 수술방법과 달리, 분비물 자극을 통해 분비물이 향상되고 기능효과 개선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절개이기 때문에 회복도 빨라 3~4주 후면 성관계가 가능하다.

질매직탭은 기존의 일반 링을 삽입하던 질성형술과 달리 미국 FDA 정식승인과 식약청에서 인증 받은 우레탄 같은 고탄성질의 의료용 매직탭을 사용해 수명도 10년~15년 정도 매우 길어졌다. 여성의 몸과 친밀한 적응성이 있어 이물감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다.

질성형술은 수술의 횟수와 경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 성형이나 피부 레이저시술 및 지방흡입수술과 비뇨기과에서 행하는 성기확대수술을 병행하는 곳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남 노블스여성의원 박정인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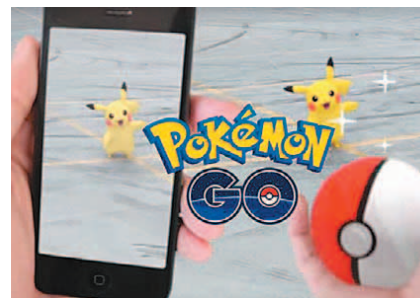


‘포켓몬고’ 설치 전 백신검사 꼭!

해외서 악성코드 유포 등 피해

경찰이 화제의 ‘포켓몬고(사진)’와 관련 사이버 범죄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20일 포켓몬고의 사이버 위협요소를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 유포’와 ‘이메일 피싱’, ‘인터넷 사기’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포켓몬고는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강원 일부 지역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사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모바일 증강현실(AR)게임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선 아직 피해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선 이미 포켓몬고 열풍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등장했다. 설치피



일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코드가 삽입돼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외국 공식 마켓을 이용해야하며 설치 전 파일에 대한 백신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일을 열어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BMW M3·M4 페인트워크 에디션 한정 판매

BMW 코리아가 고성능 스포츠카 M3과 M4에 새로운 컬러를 적용한 한정판 페인트워크 에디션을 출시했다. 페인트워크 에디션은 기존에 없던 외장 컬러와 M 퍼포먼스 파트를 한정된 수량에 적용해 차별화된 가치를 높였다.

M3에는 ‘산 마리노 블루’, M4 쿠페에는 ‘멜버른 레드’ 색상이 적용됐다. 또한 카본 프론트 스플리터, 카본 리어 스포일러 등 다양한 카본 내외장 파트를 적용해 더 감각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M3과 M4 쿠페 모두 고출력 자연 흡기 엔진에 터보차저 기술까지 더한 6기통 터보차저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출력 431마력, 최대토크 56.1kg·m의 힘을 발휘한다. 7단 M 더블클러치 변속기 장착시 제로백은 단 4.1초다.

가격은 BMW M3과 M4 쿠페 페인트워크 에디션 모두 1억1840만원(VAT 포함)이다. 카본 파츠 장착 비용은 700만원 가량이지만 가격은 450만원인 상했다. 각 10대씩만 한정 판매한다. 원성열 기자

게임빌·컴투스 ‘대작 러시’

한지붕 가족 게임빌과 컴투스가 하반기 연이은 신작 출시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한다. 이미 해외시장의 매출 기여도를 높이면서 만만치 않은 성과를 냈던 양사는 기존 게임의 성과는 지속하면서 새로운 게임을 글로벌 스타로 카를 방심이다.

게임빌은 하반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작’과 ‘유명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 10여개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를 가속화하는 전략이다.

올 하반기에 게임빌은 최근 출시한



‘킹덤 오브 워’를 시작으로 아트 토이스타일의 3D 횡스크롤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마스케이드’, 전략 RPG ‘워 오브 크라운’, 자체 개발 대작인 ‘나인하츠’, ‘데빌리언’, ‘ACB’ 등으로 글로벌



별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다. 컴투스는 핵심 타이틀인 ‘서머니즈 워’의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신작을 출시해 또 다른 대박 타이틀을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서머니즈 워

의 경우 지난 18일 프랑스, 브라질,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총 5개 국가에서 앱스토어 게임 매출 순위 정상에 오르는 등 흥행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 R’과 ‘이노비아’, ‘아이기스’ 등 RPG 라인업과 전략 게임 ‘소울즈’, 스포츠 및 캐주얼게임 ‘홀러베틀’, ‘9이닝스 3D’, ‘프로젝트G2’, ‘맨스빌’, ‘아트 디렉티브’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글로벌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9이닝스 3D와 아트 디렉티브가 3분기 내 포문을 열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는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민간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문화재단 산하의 통합 이용자보호기구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민관합동 ‘게임문화 진흥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날

출범식에선 ‘웹보드게임 통합민원 대응’과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및 모니터링’,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게임 과몰입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역할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센터는 1명의 센터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초대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경민 교수가 선출됐다. 김명근 기자